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단다.



그럼, 특별히 중요한 시어나 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줄게!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로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독재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부도덕과 탐욕
절정(에 있는 것)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왜소한 모습과 대비하여 자조하는 대상



잘 기억할 수 있겠니? 특히 '절정'의 의미는 수능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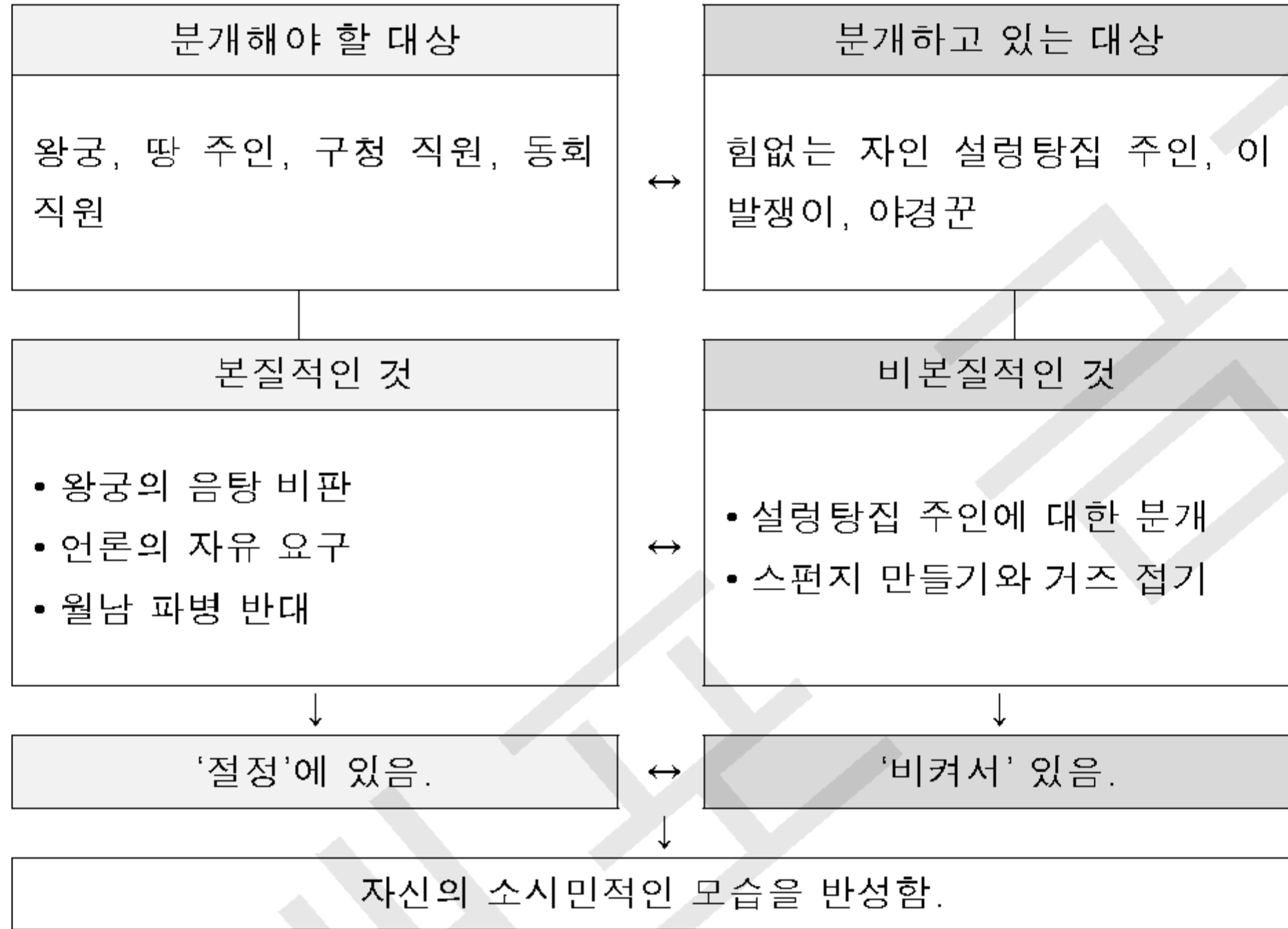


그럼요! 절정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와~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면 100점으로 보답해야겠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단다.



그럼, 특별히 중요한 시어나 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줄게!



_____	사소한 일로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_____과 그 권력에 _____한 _____의 _____과 _____
절정(에 있는 것)	_____에 정면으로 _____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_____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_____고 _____는 _____. 화자가 자신의 _____한 모습과 _____하여 _____하는 대상



잘 기억할 수 있겠니? 특히 '절정'의 의미는 수능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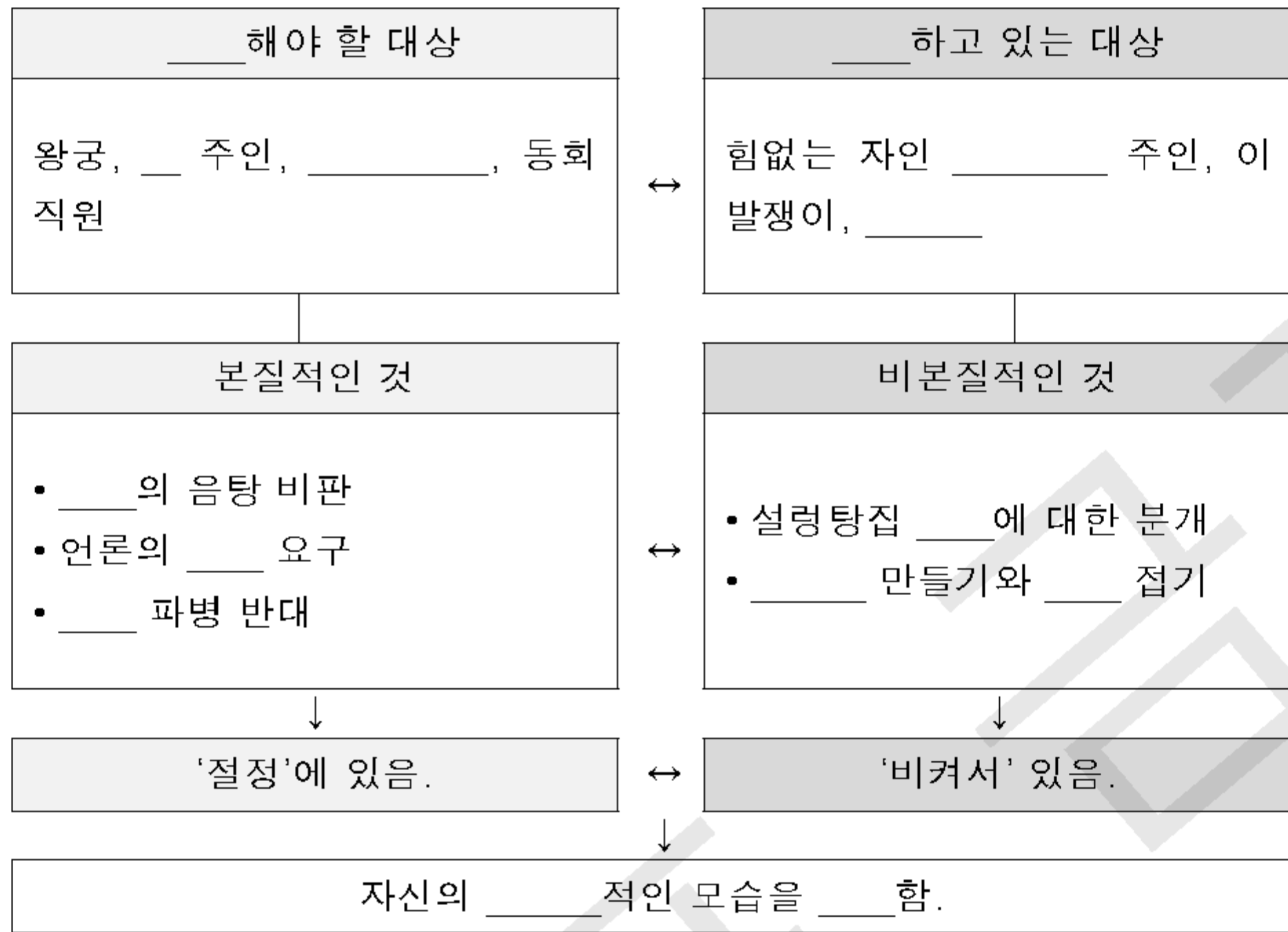


그럼요! 절정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와~ 선생님! 최고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점으로 보답해야겠지?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비본질적인 일, 사소한 일)('직설적으로 시적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며 시상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의미 및 해당 시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권력자들의 부도덕성, 탐욕스러움.-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왕궁의 음탕'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비본질적인 일, 사소한 일)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비본질적인 일, 사소한 일)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분개하고 있는 대상-힘없는 자들 / 비속어 사용: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스스로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자신의 행위가 옹졸한 것임을 알고 있음.)

▶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베트남’의 음역어) **파병**(군대를 파견함.)에 반대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침묵함. /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사소한 일) **야경꾼**(밤사이엔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해당 작품에서 ‘분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들만 중요하고 있는가

▶ 중요한 일은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반성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오랫동안 옹졸하게 살아와서 무기력함, 소시민성이 몸에 배어 있음. / 과거 일화를 제시함.)('화자의 옹졸한 모습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임을 알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포로를 유치하고 거주시키는 시설)의 제14**야전병원**(싸움터에서 생기는 부상병을 일시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전투 지역에서 가까운 후방에 설치하는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간호사)(해당 작품에서 ‘분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정보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정보원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화자의 경험담-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시민성, 응졸함을 보여 줌.)('과거의 일화를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작품에서 과거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화자의 과거 경험담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응졸한 삶의 태도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과거부터 계속된 '나'의 응졸한 삶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늬(비속어)의 투정에 진다]([]: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사소한 일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김. / 과장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강조함.)('과장을 통해 스스로의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표현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힘없고 무기력한 자신의 존재 인식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응졸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 절정 위에는 서 있지(불의에 맞서는 삶 / 비판과 저항의 한복판)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방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인 삶 / '절정'의 삶에서 벗어나 있음.)]([]: '절정 위'에 서 있는 삶과 '비켜서 있'는 삶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능형,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므로 '절정 위'에 서 있는 삶과 '비켜서 있'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이라고 알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삶의 자세를 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과 자조를 드러내고 있으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그러니까 이렇게 응졸하게 반항한다(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 힘 있는 자)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점강법)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자조적 태도)

[모래(: '나'의 왜소한 모습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함.)('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위로받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신의 왜소함을 자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위로받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 함. →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 표현)]([]: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자기반성)('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이 지속됨을 나타낸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조적인 자기반성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속으로 지문 분석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김수영 시의 특징)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자신의 응
졸하고 소시민적인 모습에 대한 자기비판이 드러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
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김수영 시의 특징)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작품 너머로 지문 분석

앉은 청년은 거울 속에서 흘끗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이발소 안에 있던 청년이 다짜고짜 그 안의 사람들을 비난함.)

하였다.

새로 들어선 청년은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 쳐 죽일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을 휘익 둘러보았다.

귀하신 분(=권력자, 실제로 두 청년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발소 안 사람들은 두 청년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을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굴복함.)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이발소 안은 두 곱으로 썬 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하였다.**(청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두 청년의 외양만 보고 자발적으로 굴복함.)(**이발소 안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통해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시민성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왜, 어쨌기?”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들이 덜 되어 먹었던 말야. 요즈음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해서들.”(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비난하는 청년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에.”(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무지함을 비판함. / 이데올로기의 허구성)(**“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이에 무지함을 비판하는 ‘두 청년’을 통해 1960년대 분단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사회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이발소 안**(1960년대 사회의 축소판-이발소 안에서 발생한 상황을 통해 1960년대 사회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냄.)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종락]

▶ 두 청년으로 인해 긴장을 느끼는 이발소 안 사람들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사복 경찰)(**“늙은이’가 데려온 ‘사복 차림’의 사람은 1960년대의 사복 경찰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심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비쭉비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평범한 시민인 두 청년의 강압적인 태도에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두려워했던 것임.)(**“일개 시민’도 위압적인 태도만으로 이발소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귀하신 분’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지니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60년대의 경직된 사회 풍속)(**“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지니는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시대상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으므로, 해당 작품의 내용과 해당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에서

연계 작품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이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사령」과 달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격이 낮은 시어를 활용하여 현실 속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자조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물음의 형식으로 시를 종결하여 시적 화자의 반성적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동일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꺾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북어」와 달리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북어」는 모두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부정적인 속성을 자조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질투는 나의 힘」과 달리 화자의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주제 의식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질투는 나의 힘」은 미래의 시점에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어구의 반복을 통해, 「질투는 나의 힘」은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_____인 일, _____한 일)('직설적으로 시적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며 시상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의미 및 해당 시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_____들의 _____, _____스러움.-진정으로 _____해야 할 대상)('왕궁의 음탕'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_____인 일, _____한 일) 분개하고

응졸하게 분개하고(_____인 일, _____한 일)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_____하고 있는 대상-_____

자들 / _____ 사용: 화자 자신의 _____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스스로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한테 욕을 하고

응졸하게 욕을 하고(자신의 _____가 _____한 것임을 알고 있음.)

▶ _____ 일에 _____하는 '나'의 모습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베트남의 음역어) **파병**(군대를 파견함.)에 반대하는]([]: _____하고 _____인

일)('_____하고 _____인 일'과 '_____하고 _____인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_____인 일과 _____인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_____롭게 자신의 _____을 피력하지 못하고 _____함. / _____을 _____으로 옮기지 못하는 _____적 모습)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_____한 일) **야경꾼**(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해당 작품에서 '분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 _____ 일은 _____하지 못하는 _____모습에 대한 _____

응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오랫동안 _____하게 살아와서 _____함, _____이 몸에 _____어 있음. / 과거 _____를 제시함.)('화자의 응졸한 모습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임을 알 수 있다.'라는 _____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포로를 유치하고 거주시키는 시설)의 제14**야전병원**(싸움터에서 생기는 부상병을 일시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전투 지역에서 가까운 후방에 설치하는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_____)(해당 작품에서 '분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_____이 생각하는 _____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_____이 생각하는 _____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화자의 _____ - _____ 부터 가지고 있던 _____, _____ 을 보여 줌.)('과거의 일화를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작품에서 과거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화자의 과거 경험담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웅졸한 삶의 태도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_____ 부터 계속된 '나'의 _____ 삶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_____ 하고 _____ 일)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늬(_____)의 투정에 진다]([]: _____ 한 화자의 모습)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_____ 일임에도 _____ 힘든 _____ 으로 여김. / _____ 표현을 통해 자신의 _____ 을 강조함.)('_____ 을 통해 스스로의 _____ 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시구의 표현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_____ 고 _____ 한 자신의 존재 인식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_____ 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_____) **절정 위에는 서 있지**(_____ 에 맞서는 삶 / _____ 과 _____ 의 한복판)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_____ 이고 _____ 인 삶 / '_____ '의 삶에서 벗어나 있음.)]([]: '절정 위'에 서 있는 삶과 '비켜서 있'는 삶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능형,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므로 '절정 위'에 서 있는 삶과 '비켜서 있'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자신의 모습에 대한 _____ 태도)이라고 알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삶의 자세를 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해 반성과 자조를 드러내고 있으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_____ 에서 _____ 하지 못하고 _____ 있는 '나'의 _____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강하게 _____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_____)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 _____ 자)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점강법)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자신의 _____ 에 대한 _____ 태도)

[**모래**(: '나'의 _____ 한 모습을 _____ 에 _____ 하여 _____ 함.)('_____ 에게 _____ 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위로받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보잘것없는 _____ 에 _____ 하여 자신의 _____ 을 _____ 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위로받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_____ 로 시상을 _____ 함. → _____ 과 _____ 의식의 _____ 표현)]([]: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____ 적 ____)('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이 지속됨을 나타낸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 ____ 하고 ____ 존재로서의 ____ 인 ____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속으로 지문 확인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김수영 시의 ____)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자신의 ____ 하고 ____ 적인 모습에 대한 ____ 이 드러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김수영 시의 ____)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작품 너머로 지문 확인

앉은 청년은 거울 속에서 흘끗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이발소 안에 있던 청년이 다짜고짜 그 안의 사람들을 ____ 함.)

하였다.

새로 들어선 청년은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 쳐 죽일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을 휘익 둘러보았다.

귀하신 분(=____, 실제로 두 청년은 대한민국의 ____한 ____이지만, 이발소 안 사람들은 두 청년의 ____인 태도 때문에 그들을 ‘____’이라고 생각하여 ____적으로 ____함.)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이발소 안은 두 곱으로 썩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하였다.**(____에 대해서 ____이 느끼는 감정-____의 ____만 보고 ____으로 ____함.)**‘이발소 안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 해져서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통해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시민성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왜, 어쨌기?”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들이 덜 되어 먹었던 말야. 요즈음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해서들.”(사람들의 ____를 ____하는 청년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____가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____에 ____을 비판함. / ____의 ____)**“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이에 무지함을 비판하는 ‘두 청년’을 통해 1960년대 분단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사회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이발소 안**(____년대 사회의 ____-____안에서 발생한 상황을 통해 ____년대 사회의 문제를 ____으로 드러냄.)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중략]

▶ 두 청년으로 인해 ____을 느끼는 이발소 안 사람들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____)(**“늙은이’가 데려온 ‘사복 차림’의 사람은 1960년대의 ____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심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비쭉비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평범한 ____인 ____의 ____인 태도에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____했던 것임.)**“일개 시민’도 위압적인 태도만으로 이발소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귀하신 분’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지니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____년대의 ____된 사회 풍속)**“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지니는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시대상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으므로, 해당 작품의 내용과 해당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에서

연계 작품 확인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이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사령」과 달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___ 이 낮은 ___ 를 활용하여 현실 속 자신의 ___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___ 인 어조를 활용하여 ___ 에 ___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___ 의 형식으로 시를 ___ 하여 시적 화자의 ___ 적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사령」은 모두 ___ 구절을 ___ 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___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확인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꺾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북어」와 달리 _____를 사용하여 시상을 _____함으로써 _____을 남기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북어」는 모두 시적 화자를 시의 _____에 직접 내세워 _____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확인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_____을 활용하여 화자의 _____인 속성을 _____으로 성찰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질투는 나의 힘」과 달리 화자의 _____을 _____으로 서술하며 주제 의식을 _____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화자 _____의 삶을 _____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_____의 시점에서, 「질투는 나의 힘」은 _____의 시점에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_____의 _____을 통해, 「질투는 나의 힘」은 _____의 _____을 통해 _____을 형성하고 있다.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내신 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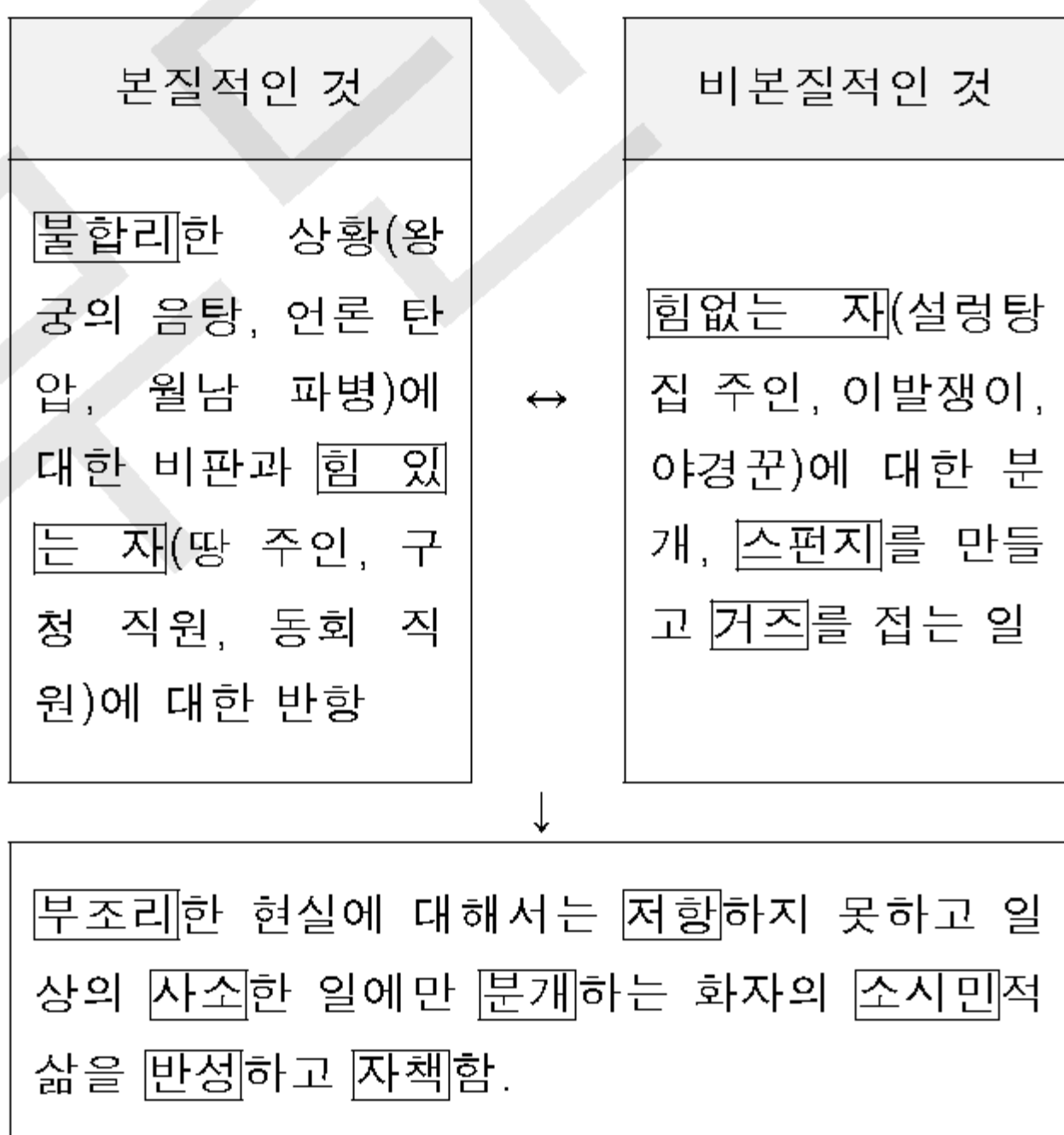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조적, 비판적, 반성적
주제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줌. • 일상어,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함.

2.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3.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로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독재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부도덕과 탐욕
절정(에 있는 것)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왜소한 모습과 대비하여 자조하는 대상

4.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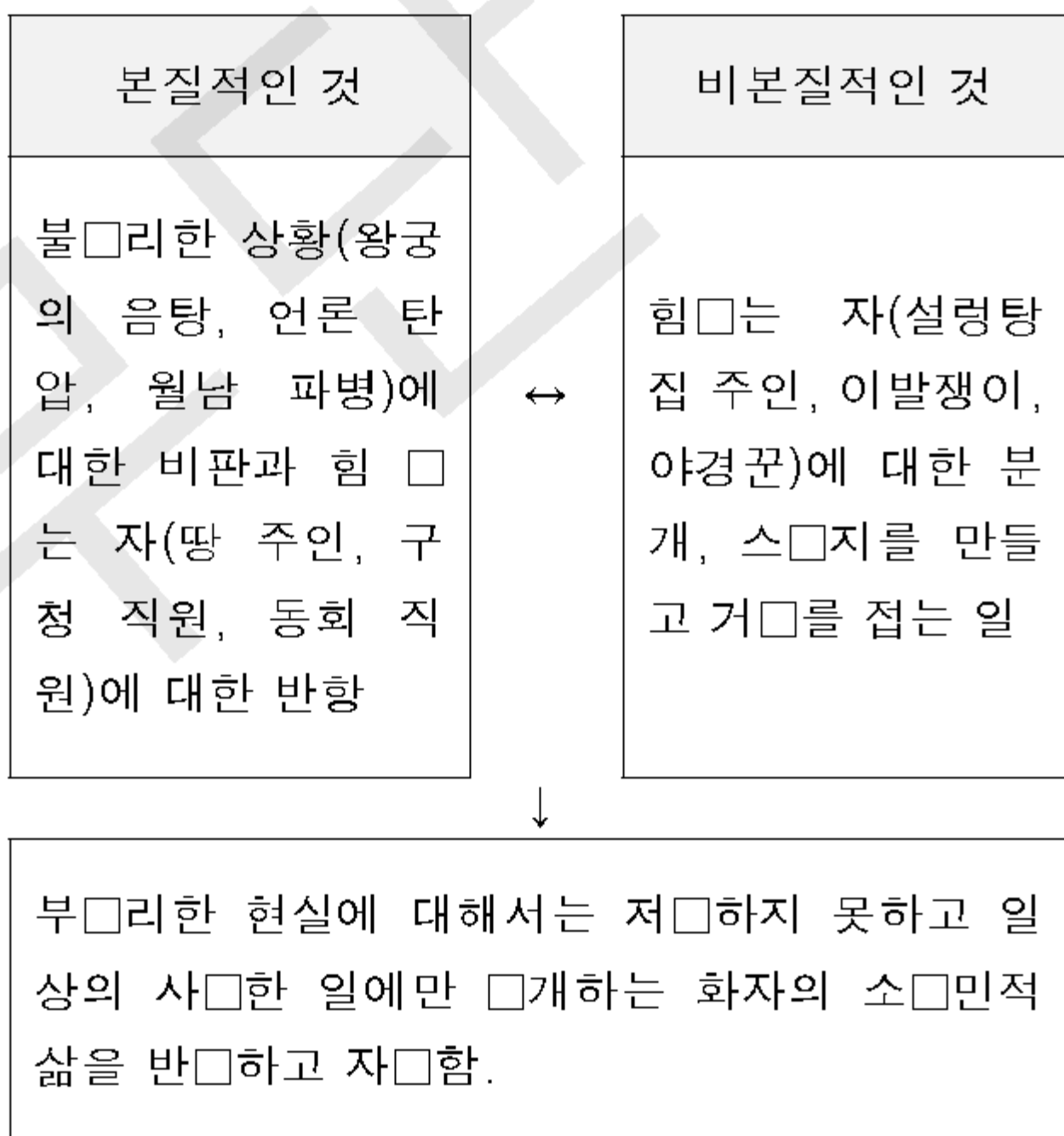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스펀지,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은행나무 잎
- 비속어: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TEST 1단계

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개관

갈래	자□시, □정시
성격	자□적, 비□적, □성적
주제	부□한 사회 현실에 저□하지 못하는 □ 시민적 삶에 대한 □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적 상황과 □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일상의 경□과 □화를 나□하여 실제적 삶을 □체적, 사□적으로 보여 줌. • 일□어, 비□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 말□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성과 자□ 의식의 지□성을 표현함.

2.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3.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사□한 일로 화자의 소□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독□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부도□과 □욕
절정(에 있는 것)	불□에 정면으로 항□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구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보□것없는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왜□한 모습과 대비하여 자□하는 대상

4.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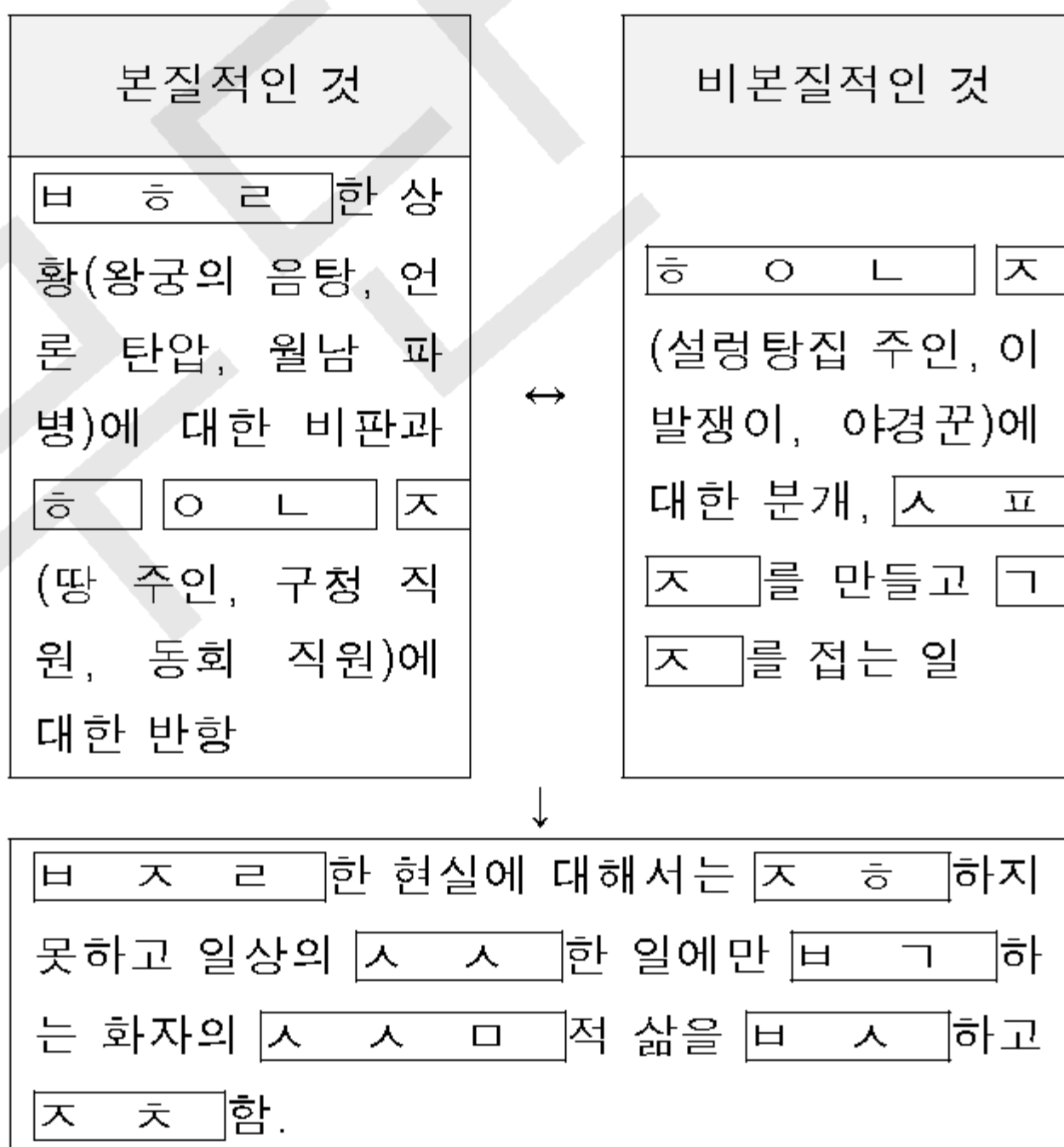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스□지,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은□나무 잎
- 비속어: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TEST 2단계

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개관

갈래	조소시, 서시
성격	조소시, 비표시, 비시 조
주제	비극한 사회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서시적 삶에 대한 비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극 상황과 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일상의 기응과 오응를 리오하여 실제적 삶을 기츠조, 서시조으로 보여 줌. • 오시오, 비시오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 표조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비시과 조조 의식의 조시을 표현함.

2.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3.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서서한 일로 화자의 서시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비극과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비극과 토오
절정(에 있는 것)	비오에 정면으로 기기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기기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비조기오리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오서한 모습과 대비하여 조조하는 대상

4.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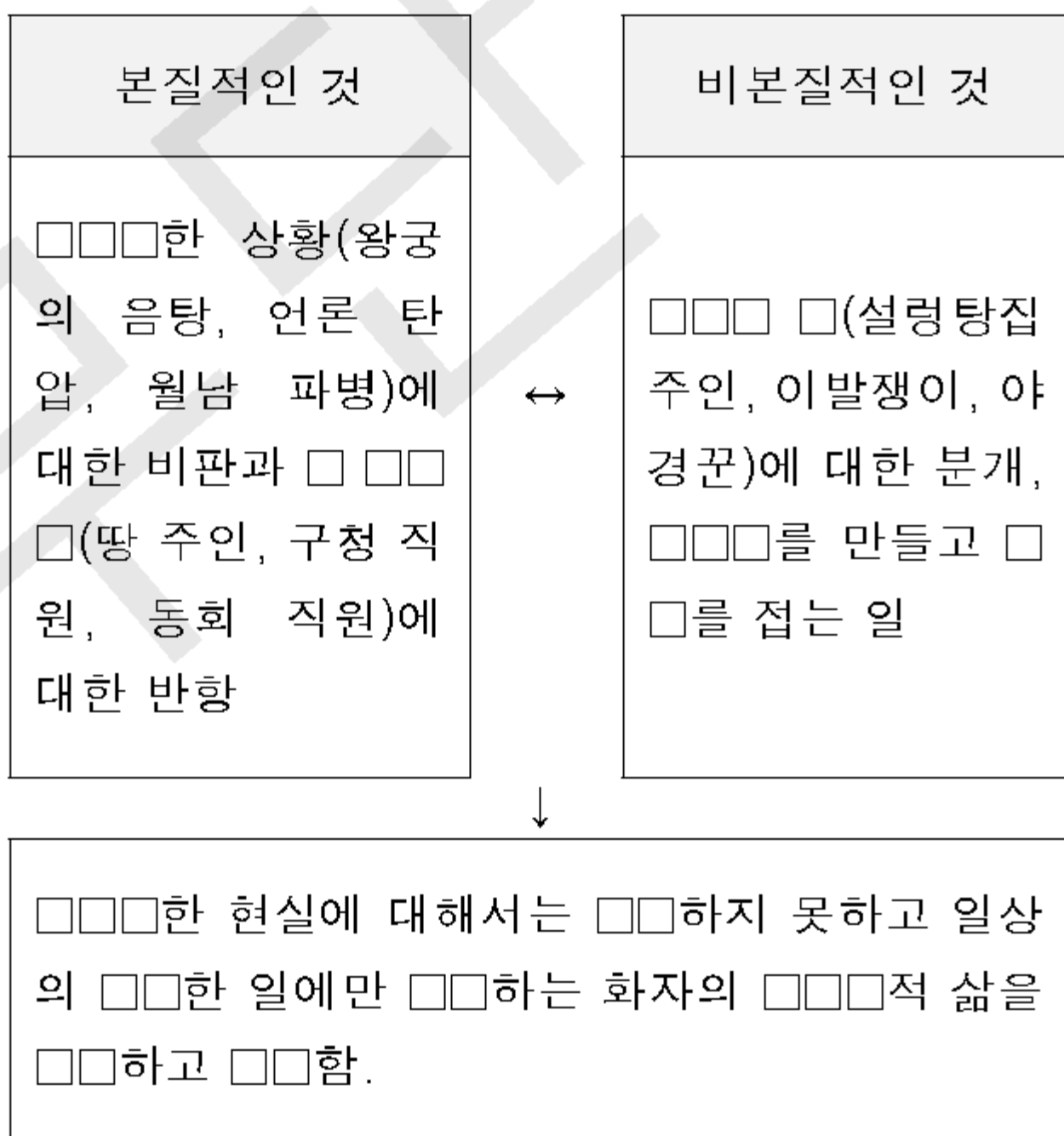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서표조,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기리오
→ 비속어: 설렁탕집 돼지 같은 조오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기리

TEST 3단계

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개관

갈래	□□□, □□□
성격	□□□, □□□, □□□
주제	□□한 사회 현실에 □□하지 못하는 □□ □□적 삶에 대한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 상황과 □□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일상의 □□과 □□를 □□하여 실제적 삶을 □□□, □□□으로 보여 줌. □□□, □□□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과 □□ 의식의 □□□을 표현함.

2.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3.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한 일로 화자의 □□□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 □□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과 □□
절정(에 있는 것)	□□에 정면으로 □□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한 모습과 대비하여 □□하는 대상

4.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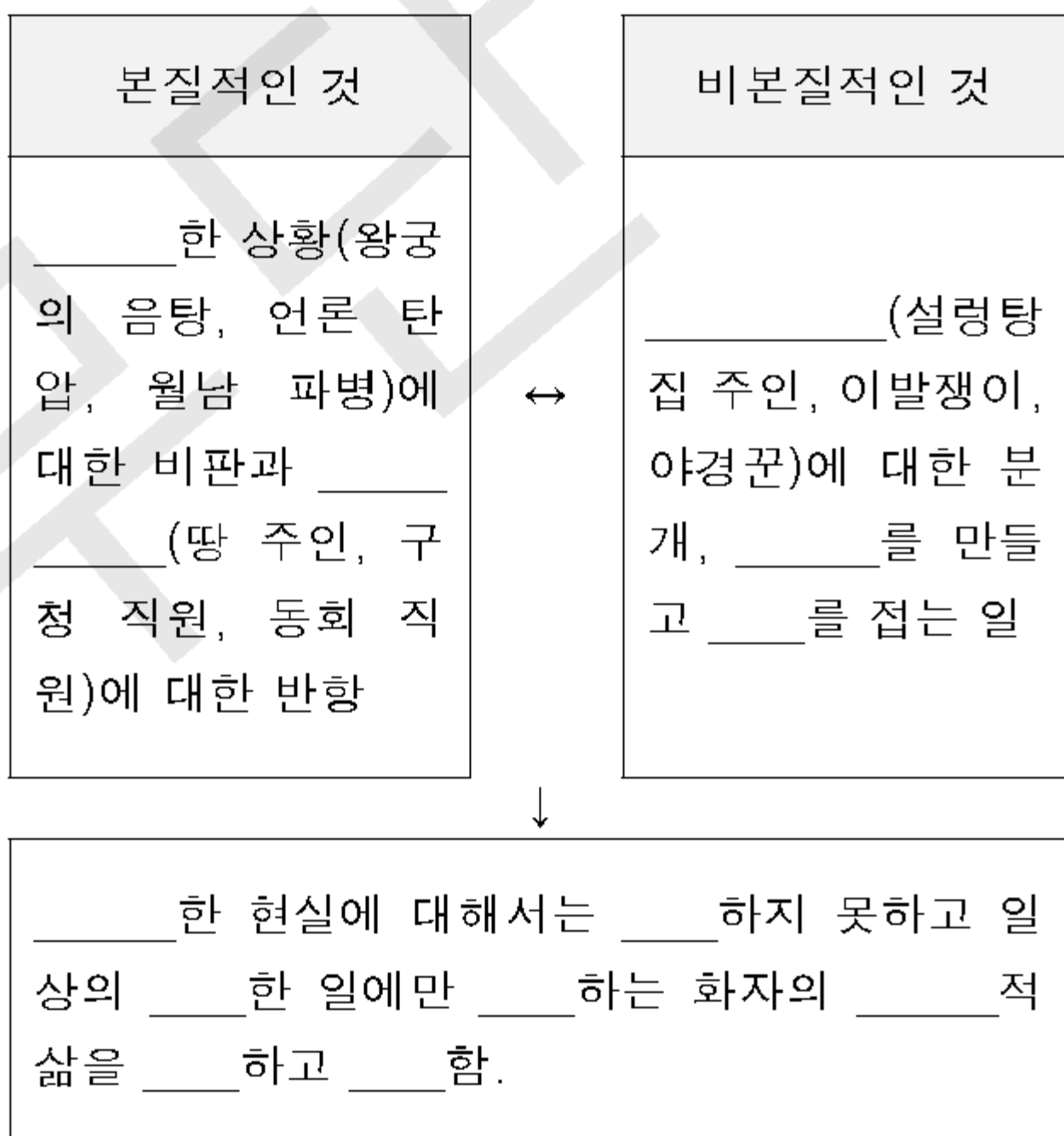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늬의 투정, □□□□ □
→ 비속어: 설령탕집 돼지 같은 □□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

TEST 4단계

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개관

갈래	_____, _____
성격	_____, _____, _____
주제	_____한 사회 현실에 _____하지 못하는 _____적 삶에 대한 __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적 상황과 _____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일상의 _____과 _____를 _____하여 실제적 삶을 _____, _____으로 보여 줌. • _____, _____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함. • _____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_____과 _____의식의 _____을 표현함.

2.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3.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_____한 일로 화자의 _____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준다.
왕궁의 음탕	_____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_____과 _____
절정(에 있는 것)	_____에 정면으로 _____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_____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_____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_____한 모습과 대비하여 _____하는 대상

4.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김수영 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보자.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 구사를 통해 시인은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정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 일상어: 50원짜리 갈비, 20원, _____, 거즈, 개의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_____
- 비속어: 설령탕집 돼지 같은 _____, 머리에 피도 안 마른 _____